



담당부서	기획팀	담당자	변영현 (871-1621)	2014. 12. 17.(수)
------	-----	-----	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

제목: 연말을 맞아 동문·교수 기부 잇달아

- 극동제약 이예식 前명예회장 학교 발전 위해 3억원 쾌척
-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최윤재 교수 1억원 출연

- 극동제약 이예식 前명예회장 학교 발전 위해 3억원 쾌척

- 서울대학교 동문 및 교수의 기부가 잇달아 따뜻한 연말을 선사하고 있다.
- 극동제약 이예식 前명예회장(서울대 약학과 46입)이 약학대학 신약개발 센터건축기금 1억원을 추가로 출연했다. 이날 출연에 앞서 이 前명예회장은 서울대총동창회 장학빌딩 건립금(1억원) 등 2억원을 기부한 바 있어 총 3억원을 쾌척했다.
- 12월 17일(수) 이 前명예회장은 총장실을 방문해 기부금을 직접 전달했으며, 성낙인 총장, 이봉진 약학대학 학장, 이철수 발전기금 상임이사, 이상국 약학대학 교무부학장 등이 참석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.
- 이예식 前명예회장은 1949년 서울대 약학대학 졸업 후 서울시 약사회 부회장, 서울시 약업위원장, 대한약사회 총무위원장·부회장, 극동제약 회장 등을 지냈다.
- 또한 모교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1996년부터 2004년까지 8년간 약학대학 동창회장직을 역임하여 동문회 및 모교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. (사진설명1: 이예식 회장이 기부금 전달 후 성낙인 총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)

-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최윤재 교수 1억원 출연

-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최윤재 교수도 이날 3,000만원을 기부해 학교 발전을 위해 총 1억원을 쾌척했다. 최교수는 지난 2012년 아들 결혼식 축의금 전액인 7,000만원을 발전기금으로 기부한 바 있다. 12월 17일(화) 총장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성낙인 총장, 최윤재 교수를 비롯해, 농업생명과학대학 이학래 학장, 이철수 발전기금 상임이사, 전창후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생부학장 등이 참석했다.
- 성낙인 총장은 “교수님의 한결같은 나눔과 배려 정신은 학교와 사회에 큰 귀감이 된다”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. 최윤재 교수는 “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많은 혜택을 받아왔다”며 “기부는 당연한 사회적 책임”이라고 말했다.
- 최윤재 교수는 서울대 부임 이래 26년간 우리나라 전통 축산 분야에 생명공학을 도입하여 기술집약적 동물산업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해 왔다. 또 기초과학 분야에서부터 항생제 대체 사료첨가제, 친환경 기능성 축산식품 등 실용화 기술개발까지 폭넓은 연구를 수행하며 총 200여 편의 SCI논문과 100여 건의 특허를 등록한 바 있다.
- 서울대 평창그린바이오 연구소 사업추진단장을 지낸 최 교수는 평창캠퍼스 건립에 크게 기여했으며, 기업과 기술이전을 통해 서울대학교 브랜드의 상품을 출시하는 등 기술 산업화 분야에서도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. 이러한 공을 인정받아 지난 11월 서울대 농생대 교육연구재단에서 ‘서울대학교 상록연구대상’을 수상했다.

(사진설명2: 성낙인 총장이 최윤재 교수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.)